



양양소식

2021. 11. Vol. 318

기획특집_ 황포돛배 타고 남대천 따라 양양을 만나다



올해도 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세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2021-2022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만 75세 이상 (1946.12.31. 이전 출생자)

만 70~74세 (1947.1.1. ~ 1951.12.31. 출생자)

만 65~69세 (1952.1.1. ~ 1956.12.31. 출생자)

● 지원기간

2021.10.12.(화) ~ 2022.2.28.(월)

2021.10.18.(월) ~ 2022.2.28.(월)

2021.10.21.(목) ~ 2022.2.28.(월)

● **접종기관 :**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대상자, 보호자는 코로나19증상
있을 시 내원 전 알리기



5 접종 후 현장에서 15~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예방접종 도우미 바로가기



안드로이드폰용
QR코드



아이폰용
QR코드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희망양양

- 4 기획특집_ 황포돛배 타고 남대천 따라 양양을 만나다
- 8 마을가는 길_ 강현면 사교리
- 12 맛있는 양양여행_ 잊힐 수 없는 양양의 감각음식 '명태 서거리'



양양 남대천 생태관찰로

의기양양

- 14 의정소식_ 제25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 16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범일국사와 정취 보살의 신비한 만남과 몽고군 침입으로 인한 재앙을 알아본다
- 18 YANGYANG NEWS
- 21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양양 남대천

열린양양

- 22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4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 28 공익광고

양양군 SNS 주소

-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yangyang>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likeyyangyang_official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양양소식 · 318호

| 발행일 2021년 11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황포돛배 타고 남대천 따라 양양을 만나다

양양은 동해로는 남대천이 흐르고, 태백산맥 줄기에는 설악산이 우뚝 서 있어 살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연어가 돌아오는 남대천은 맑고 깊은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넓은 남대천변은 공원으로 잘 가꿔져 있다. 요즘처럼 가을 햇볕이 좋은 오후에는 도시락을 싸와서 먹거나 꽃밭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과 파크 골프를 치는 사람들로 붐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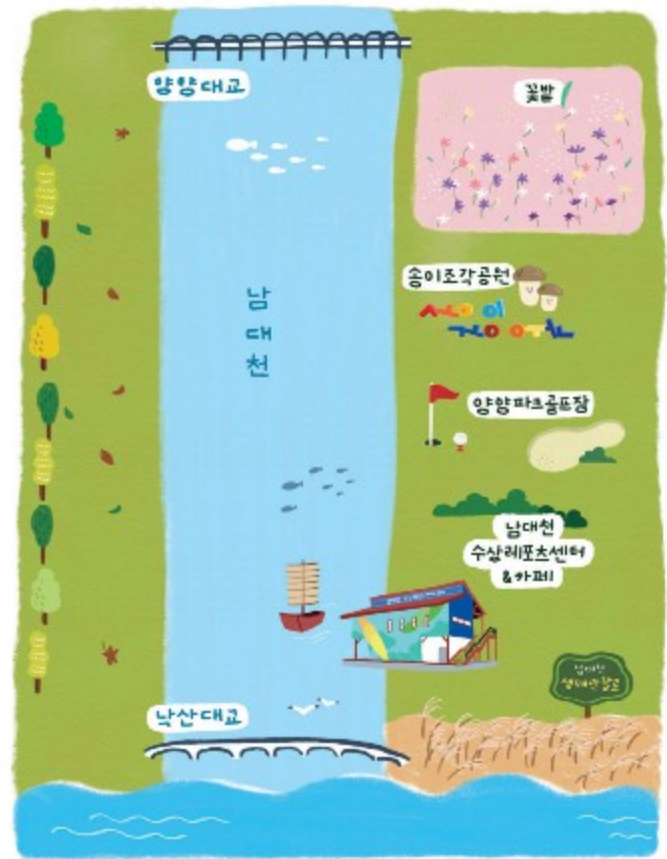
이제 양양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남대천에서 황포돛배를 타고 남대천의 자연과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산과 바다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강에서 즐기는 새로운 즐길거리가 기대된다.

양양 남대천, 최고의 휴식공간을 꿈꾸다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이 이어지면서 탁 트인 공원을 찾는 군민이 많아졌다. 요즘 남대천은 꽃밭에서 사진을 찍거나 산책 또는 운동하는 군민들이 늘어나 최고의 휴식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된 남대천 관광 자원화 사업이 최근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치수(治水)와 친수(親水)가 결합된 문화복합공간으로서 남대천 제방 9.7km에 이르는 공간이 생태-인간-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생태공원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양양전통시장 앞 남대천 둔치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자연형태의 굴림석이 좌석처럼 가지런히 쌓여져 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남대천 주민참여정원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기부하고 심고 가꾼 주민들의 정원으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정원은 하천관리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대교와 낙산대교 사이에는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었는데 꽃들이 만발한 꽃밭이 가장 인기가 많다. 계절마다 다채로운 꽃을 피워 포토존으로 인기가 많은데,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아름답다. 앞으로는 남대천과 설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휴게(전망)쉼터와 전망대(포토존)도 설치된다하니, 느긋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다.

송이조각공원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가 갖춰져 있고, 이어서 자리한 파크골프장에서는 선선한 날씨에 골프를 즐기는 건강하고 유쾌한 주민들을 모습을 볼 수 있다. 11월 2일 양양군 파크골프대회를 앞두고 한창 연습에 바쁜 김영식 씨(75세)도 파크골프장에 대한 자량이 대단했다.

“골프장이 36홀이 있고, 또 추가로 조성되는데, 참 좋죠. 전국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아요. 잔디밭이 이렇게 넓고 시원하게 펼쳐져 있으니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어서 더 바랄 게 없어요. 11월 대회를 준비 중인데, 성적은 중간 정도예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만한 자량이 없다. 파크골프는 공원(Park)과 골프(Golf)의 게임 요소를 합친 개념으로, 일반 골프와는 달리 나무로 만든 골프채로 나무 공을 쳐서 잔디 위홀에 넣는 스포츠다. 남녀노소, 장애인·비장애인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 작은 공간은 특히 어르신들의 스포츠 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황포돛배 '섬들나루호'를 타고 양양을 다시 보다

남대천 하구인 낙산대교를 기점으로 수변레저지구, 생태공원지구, 체육공원지구, 문화관광지구 등 4개 지구로 구성돼 막바지 시설이 갖춰지고 있는데, 수변레저지구에서는 황포돛배를 타고 남대천 하구를 돌며 양양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다.

배를 타고 남대천의 자연경관을 관람하면서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강형 수로 1.2km를 포함한 총연장 2.9km를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셋강과 본류를 순환하면서 하천 생태체험과 레저관광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선박의 외관을 살린 황포돛배는 수상레포츠 체험센터가 위치한 양양읍 조산리의 옛 지명인 도평(島坪)의 우리말로 '섬들나루호'로 이름이 지어졌다. 12명이 정원인 섬들나루호는 30분 이용 기준 어린이 4000원, 청소년

6000원, 성인 80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는 전통조각배와 패들보트 등을 타고 남대천 수로를 따라 주변 생태경관을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남대천 일대는 여화원과 이벤트 광장, 수변 캠핑장과 물놀이장, 피크닉 공간과 무동력 수상레포츠 체험 공간, 파크골프장과 파노라마 전망대, 수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등이 조성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여기에 둔치 벚꽃길,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가 마무리되면 생태습지와 연계해 양양의 생태공원으로 아름답게 조성될 것이다.

양양 남대천은 군민들에게는 건강한 삶의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양양의 자연 생태의 아름다움을 만나는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사진 : 편집부)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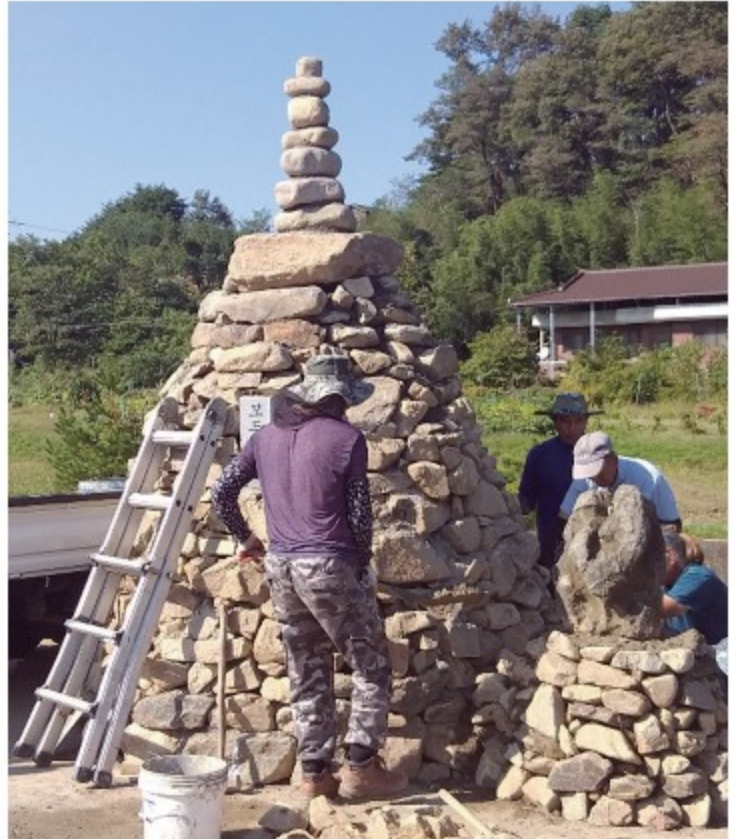
강현면 사교리

부촌에서 궁촌, 다시 아름다운 마을로 거듭나기까지
모든 주민이 앞장서서 만들어가는 행복한 터전!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꿈꾸다

동요 '고향의 봄'을 부르다 보면 화사한 꽃들에 둘러싸인 정겨운 마을이 떠오른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어쩌면 그 꽃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피어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든 고향에 다시 돌아왔을 때 세상살이에 지친 마음을 따스하게 안아주려고 그 마을 사람들이 꽃들을 정성껏 가꿔 온 건 아닐까 하는.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행복하게 정주하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열심인 강현면 사교리 사람들처럼 말이다.



사교리를 아시나요?

강현면 사교리는 양양대교를 기점으로 7번 국도를 따라가다 조산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5km쯤 달리면 만나게 되는 마을이다.

낙산사에서 시작하는 안골로, 강현면사무소에서 출발하는 진미로, 조산리에서 시작하는 사례로, 양양읍에서 이어지는 감동골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교리에 닿을 수 있다. 마을로 진입하는 길이 여러 갈래다 보니 오래전 이 마을의 선조들은 사방으로 복이 달아나지 않도록 마을 입구마다 소나무를 심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

소나무가 이 마을의 복을 잘 지켜주었기 때문인지 풍부한 수자원과 기름진 농토를 갖춘 사교리는 주민 절반 이상이 기와 집에서 살 만큼 부촌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서당에서 어릴 때부터 한학을 익히며 배움의 기쁨을 굳건히 다진 덕분에 뛰어난 인재들도 많았다.

양양군의 모든 마을처럼 사교리도 한국사의 모진 풍파를 헤쳐온 마을이다. 1919년 4월 양양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철기·김환기 애국지사의 고향이자, 1960년대에는 마을의 여러 젊은이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역사를 가진 동리로 어려운 시절에도 남다른 애국심을 보여주었다.

물적·인적 자원이 풍부했던 사교리의 수난시대는 6.25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시작되었다. 1951년 1.4후퇴 당시 소개령(疏開令)이 내려지자 마을의 모든 집이 불태워지면서 주민들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전쟁 이후에는 남자들이 다 떠나버린 마을에서 부녀자들과 아이들만이 남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기와지붕이 초가지붕으로 바뀌고, 다시 함석지붕으로 변하는 사이에 젊은이들은 각자의 꿈을 찾아 고향을 떠났고, 사교리는 노인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는 고령화 마을이 되었다.

행복한 장수마을을 꿈꾸며

현재 사교리에 거주하는 주민 수는 38세대 71명으로,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귀농귀촌인 가구가 각각 50%씩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통적 농업 중심 마을이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계층이 살아가는 복합직업 마을로 변모했다. 그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 결속력은 헐거워져 마을의 화합과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6년 범죄 없는 마을과 화재 없는 마을 프로젝트가 주민들의 협조 아래 이루어지긴 했어도, 공동체 운영 사업은 진행된 바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 마을 이장으로 취임한 김광래 이장(73세)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뛰어들었다.

'한마음 꽃밭, 길 조성'이라는 주제로 다년생 꽃나무, 야생화, 백일홍 등 총 500본의 꽃을 심고, 50개의 바람개비를 곳곳에 설치해 미적 운치를 더했다. 여기에 살구나무와 앵두나무, 꽃복숭아, 목백일홍, 라일락, 무궁화 등 꽃나무를 마을 도로 변에 식재하여 '향수(鄕愁)꽃길'을 조성했다.

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자들이었지만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2020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평가에서 장려상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2021년에는 지난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강한 사업을 계획했다. '행복한 장수마을 가꾸기'라는 주제 아래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정주할 수 있도록 마을을 더 살기 좋게 가꾸고, 해안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골 관광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우선 2020년에 조성한 향수꽃길 맞은편에 마을의 안녕과 풍



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수해에 떠내려 온 돌들로 탑을 쌓고 그 옆에 7개의 솟대를 세웠다.

향후 이곳에 벤치와 화단, 안내판을 설치해 어르신들의 쉼터인 소공원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현재 마을둘레길 3km 단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노송지대 쉼터 조성과 마을 취약지대 개선사업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행복한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치매 예방과 정서 함양을 위한 '종이접기 수업'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광래 이장은 올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사업계획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주민들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단합해서 안골 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발상과 사업에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담당제를 도입한 것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양양의 관광지가 해안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교리도 사방으로 군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이킹족들이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작은 동네지만 가볼 만한 곳과 막국수, 과즙, 찹쌀떡 등 소문난 먹거리도 많죠. 주민들과 열심히 마을을 가꾸어서 마을의 가치를 더 높이고자 합니다."



꽃 심는 마을, 사교리의 미래를 위해



대부분의 시골마을들이 인구감소로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사교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 출신 출향민과의 네트워크를 조성해 고향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그 후손들까지 마을에서 정주할 수 있는 기반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경기도 교육위원과 성남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역임한 김광래 이장 역시 오랜 시간 동안 고향을 떠나 있다가 7년 전 다시 돌아왔다. 정년퇴직 후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결심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주위 꽃 심기였다.

“꽃을 심으면 아름답잖아요.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꽃밭이면 기분이 좋겠죠. 꽃을 심어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산책로가 되더라고요.”

꽃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였고, 어느 날부터는 주민들도 집집마다 꽃을 심었다. 어쩌면 마을의 변화는 그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있었는지 모른다. 우리 집 앞에 꽃을 심는 마음으로 주민들은 마을 가꾸기에 열과 성을 다했다.

김광래 이장은 앞으로 고향을 떠났던 출향민들과 그 후손들이

마을로 돌아와 정주하며 사교리의 미래를 이끌어주길 바라고 있다. 그는 이미 몇몇 세대가 고향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어느 댁 딸은 고향으로 내려와 살 집을 짓고 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을 만들까 생각 중이고, 과즐로 유명한 김화자 할머니네는 큰 과즐 공장을 지어 해썬(HACCP) 인증까지 받았는데 곧 딸과 사위가 내려와 가업을 잇기로 했다.

사교리는 고향과 출향민의 거리를 좁히고,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마을의 미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고향이 그저 그림기만 한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교리의 온 주민들이 힘을 쏟고 있다.

〈글·사진 : 편집부〉



잊힐 수 없는 양양의 감각음식 '명태 서거리'



그때는, 명태바리를 나가기만 하면 배가 찢랑찰랑할 정도로 명태를 몇 바리씩 잡아오기 일쑤였다. 뱃창이 꽉 차고 넘치도록 고깃배가 온통 명태 천지였다.

양양에서도 들리던 명태 바리 소문은 고성에서는 동네 개들도 만 원짜리 명태 돈을 물고 돌아다닌다고 할 정도였고, 화물차에 명태 께짝을 싣고 가다가 화물 검문소에서 잡히더라도 하면 돈 대신 명태를 뒷돈으로 준다더라는 소문이었다.

양양말로 명태가 '개락'으로 잡히던 십수 년 전의 이야기이다. 그 명태 돈을 벌러 한겨울이면 양양 사람들도 고성에 셋방을 얻어 놓고 명태바리 배를 탔다. 그때의 '명태'는 일명 '지방태'라고 해서 기름기는 고소하고, 살맛은 쫄면고 담백하면서 단맛까지 오부지게 살가웠던 절대 존재의 음식이었다.

양양 음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태 서거리'

비록 양양이 명태산지(明太產地)는 아니더라도, 양양의 음식과 음식문화에서 명태와 관련된 지역 전래 음식 중에서 '명태 서거리'를 빼놓을 수 없다.

한겨울이면 명태가 어느 집의 찬품(饌品)이 되어주기도 하고, 어느 술꾼의 안줏거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아궁이 불에 구워 놓으면 '소고기 육포'처럼 질경질경한 굳것질 거리가 되어주기도 하였지만, 명태 아가미를 석박지와 버무려 담은 '명태 서거리'는 한겨울이면 양양에서 유독 많이 즐겨 먹었던 독특한 '젓갈김치'였다.

명태 아감젓, 명태 서더리라고도 하는데 식해와 젓갈 식문화권인 양양을 비롯한 영동 북부지역에서 '가자미식해'와 함께 인생음식 정도로 즐겨 먹었는데 식해(食醃)이면서, 젓갈이면서, 김치의 역할까지 해주어, 말 그대로 한겨울 밥상에서 찬거리 걱정을 덜어 주었던 양양 음식이었다.

'서거리'는 영동북부 사람들이 명태 아가미를 뜻하는 사투리이다. 이 이름 그대로 소금에 절여 놓은 명태 '서거리'를 납작납작하게 썬 무와 섞어 고춧가루와 갖은양념으로 버무려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은 것이 젓갈을 담그듯이 한다고 해서 '명태 아감젓'이라고도 한다.

생선에 밥을 넣어 '가자미식해'처럼 삭혀 많이 즐겨 먹는 곳으로 동해안에서는 양양, 고성, 속초, 강릉의 영동북부 지역과 밥식해로 유명한 포항, 북한에서는 함경도 지역인데, 이렇듯 식해류, 젓갈김치류 음식이 발달하게 된 이유가 있다. 이 같은 모든 음식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겨울을 대비한 저장음식이라는 점이다.

무엇인가 허전해진 양양의 겨울밥상

영서지역에서 겨울을 대비하여 나물장아찌를 담가 놓듯이, 양양이 해산물 산지(產地)라고 해도 겨울철 고기잡이는 조업이 힘들고, 겨울이 길다 보니 겨울을 대비한 저장성 찬품(饌品)으로 자연스럽게 담가 먹게 된 것이다.



비록 '명태 서거리'가 양양만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지역 음식은 아니더라도, 분명한 것은 양양의 음식에서도 고조선(古朝鮮) 사람들이 그랬듯이 '섞음'과 '삭음'의 절묘한 경계의 맛을 가려내는 본능적인 감각의 지혜로 즐겨 먹었던 음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 손끝으로 담가 두었다가 밥상에 던지시 올려졌던 '명태 서거리'가 양양의 밥상에서 맛보기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새초롬하게 사금사금하게 삭힌 맛도 좋았고, 잔뼈가 뼈죽뼈죽하게 씹히는 '서거리'를 진득하게 씹는 맛도 별미였던 양양의 오랜 음식이었는데 말이다. 간혹 어느 식당에서 우연히 맛이라도 보게 되면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씨앗 한줌 뿌릴 땅만 있으면 가난을 가난인줄도 모르고 살았던 영서지역 화전민들이 제삿날이면 밥공기 아래에는 주식으로 먹던 옥수수, 감자, 콩 등을 섞어 지은 잡곡밥을 담고, 위로는 귀한 쌀밥을 얇게 퍼 발라 '젓밥'을 마치 하얀 쌀밥인 것처럼 꾸며 제사상에 올렸던 제례음식문화가 있었다.

화전민들이 삶에서 궁여지책으로 만들게 된 '음식의 지혜'였다. 한겨울 양양에서 즐겨 먹었던 '명태 서거리' 또한 화전민들의 지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양양의 '명태 서거리'가 양양만의 것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같은 음식이라도 느껴지는 맛의 감수성은 양양만의 것이니, 다가올 겨울에는 양양의 '명태 서거리'가 더욱 아련한 것이다.

글·사진: 강원도 외식저널대표 황영철



제25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2022년도 각종 출연금 등 9개 안건 심의·의결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의 일정으로 제25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동의안 그리고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의결한 뒤 폐회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10월 18일부터 2일 동안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하반기 현장점검은 지난 상반기에 현장점검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 건의했던 문제점이나 보완할 부분들이 잘 정비되고 있는지,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새로운 현장에 대해서는 꼼꼼히 현장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주요 현장으로는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남대천 인피니티 물놀이장, 종합여객터미널 신축 현장, 양양국제공항 실내공원 조성 현장 등이 포함되었다.



먼저 준공을 앞두고 있는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의 경우 착실한 사업 마무리를 당부하며 횡대나 조형물 설치를 통해 운치 있는 경관조성에 힘써 줄 것과,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남대천 제방도로 포장 시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자재를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동해생명자원센터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연어와 상생 가능한 남대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종합운동장~국도44호선간 도로개설 현장에서는 인근 아파트를 경유하는 문제로 민원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버스노선 확정시 민원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과 향후 보완책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지난 점검 시 보다 생산 품목이 다양해진 점이 눈에 띄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새로운 제품 개발과 많은 농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복숭아나 배와 같은 우리군 주력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이 미약한 점을 지적하며, 기존 판매 중



인 제품들과 접목하여 새로운 제품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건의했다.

19일에는 양양국제공항 실내정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공항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원만한 사업추진으로 공항 홍보에 기여하고, 실내정원을 통해 새로운 볼거리와 포토존이 제공됨으로써 관광객의 눈과 발길을 사로잡는 새로운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시행전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시설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을 전달하며, 주 사용층을 미리 고려하고 상주인력과 사용대상들 모두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개발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완·건의사항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며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범일국사와 정취 보살의 신비한 만남과 몽고군 침입으로 인한 재앙을 알아본다

범일국사는 정취 보살과 중국 명주 개국사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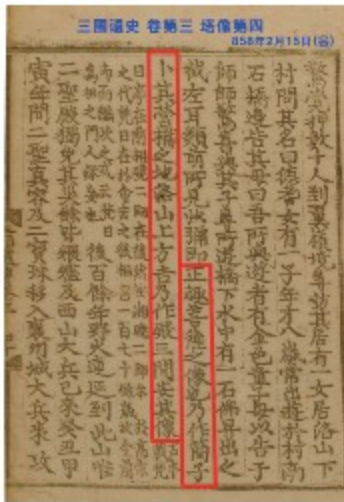
범일국사는 신라 흥덕왕 2년부터 흥덕왕 10년간에 당나라에 건너가서 명주(明州) 개국사(開國寺)에 이르렀을 때 왼쪽 귀가 없어진 한 스님이 여러 스님의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국사에게 말하기를 “나 역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집은 명주계(溟州界) 익령현(翼嶺縣: 지금의 양양군) 덕기방(德耆坊)에 있습니다. 국사께서 훗날 귀국하시면 꼭 제집을 지어주십시오.” 라 청하였다.



범일국사 진영(眞影)

범일국사(梵日國師, 810~889)가 여러 총석(叢席-많은 승려들이 모여있는 곳)을 두루 다니며 선에 정진하다가 마조도일 선사(馬祖道一禪師)의 제자인 염관제안 선사(鹽官齊安禪師)에게 불법(佛法)을 얻어 신라 문성왕 9년(847) 정묘에 귀국하여 당시 명주도독(溟州都督) 김공(金公)의 초청으로 지금의 강릉 굴산사(窟山寺)를 세우고 선의 가르침을 폈다.

범일국사는 낙산 위에 불전을 짓고 정취 보살의 상을 모셨다.



『삼국유사』 정취보살 낙산사에 모심

지난날 중국의 명주 개국사에서 만났던 스님이 창문 밑에 와서 말했다. “옛날 명주 개국사에서 국사(國師)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약속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놀란 국사는 꿈에서 깨어나 사람들과 함께 익령현 경계로 찾아가서 그 스님이 있는 곳을 찾았다. 선문의 대선사로서 바쁜 일상에 빠져있던 국사는 지난날 중국의 한 절에서 만난 초라한 행색의 스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수소문 끝에 낙산(洛山) 아랫마을에 사는 한 여인을 찾아서 사는 곳을 물으니 덕기(德耆)라고 대답했다.

그 여인에게는 여덟 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항상 마을 남쪽 돌다리에 가서 놀았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물었다. “너는 매일 누구랑 그렇게 재미있게 노니. 아들은 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응. 엄마. 나와 같이 노는 아이들 가운데에는 금빛이 반짝이는 아이도 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국사에게 말했다.

국사가 놀라고 기뻐하며 그 아들과 함께 다리 밑에 가서 찾으니 물 가운데 돌부처 하나가 있어 꺼내었다. 왼쪽 귀가 떨어진 것이 이전에 본 사미(沙彌)와 같았는데 이는 곧 정취(正趣) 보살의 상이었다. 이에 점치는 괘 쪽을 만들어 절 지을 터를 점쳐보니, 낙산 위가 길하므로 그 곳에 불전 세 칸을 짓고 그 보살상을 모셨다.



정취전(正趣殿)



양양한우, 강원축산경진대회 한우 출하성적 최우수상 수상

양양한우가 '제46회 강원축산경진대회' 한우 고급육 품평회 출하성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양양군은 강원도가 주최하고, 농협 강원지역본부 및 강원도 축산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2021 강원축산경진대회 한우출하성적 879.1점으로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우(거세우) 출하성적 심사는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출하한 한우(거세우)를 대상으로 시·군 등급별 출현율에 배점을 곱하여 1차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사육기간을 가감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총점 879.1점으로 2위 홍천군 867.9점보다 11.2점이 높았고, 3위 원주시 858.6점보다는 20.5점이나 크게 앞섰다. 이는 도내 한우(거세우)출하성적 부문에서 양양한우의 품질과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다.

양양군, 한양대학교병원과 우호교류 협약 체결

양양군과 한양대학교병원이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교류에 들어갔다. 이번 교류는 한양대학교병원 병원장을 역임하고, 동대학 의과대학교 외과학 교수로 퇴임한 양양군 권성준 보건소장과 양양군의회 의원의 제안으로 양양군민의 다양한 의료혜택 제공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윤호주 한양대학교병원장, 김진하 양양군수, 김의성 양양군 의회의장 등 양 기관 9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 우호교류 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한양대학교병원은 양양군에 △군민 종합건강검진 의뢰 시 감면혜택 △군민대상 건강검진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 △진료절차에 따른 편의제공 등을 지원하고, 양양군은 한양대학교병원에 △관광시설 이용 등 편의제공 △양양군 특산물 직거래 알선 등 협력 교류를 추진한다.



강현면 간곡리, 새농촌 도약마을 선정

양양군 강현면 간곡리(이장 남정희)가 2021년 강원도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주민주도형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도약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간곡리는 도비 3억원, 군비 2억원 등 총 5억원을 지원받아 마을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양양군은 변화하는 농촌의 여건과 사회 트렌드를 반영 내실 있는 마을사업이 되도록 추진마을에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멘토링을 통해 도약마을 선정의 결과를 얻었다.

간곡리는 새농촌 마을 만들기 추진 2년차로,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행복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마을문화 복지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마을을 자연놀이 생태마을로 가꾸는 것을 목표로 마을클린 공간, 휴양놀이터, 휴식공원 등을 조성하고, 건강증진시설, 빨래방, 공동생활홈, 마을카페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심신안정과 문화·복지 혜택을 수준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 위진 양양읍 홍보관에서 안심익거리를 신선하게 쇼핑하세요.

양양물 신선함을 동행드려요

<https://yangyangmall.kr/>

양양물&스마트스토어, 9월 한 달 동안 4억원 매출 '굉충'

2011년부터 직접 운영하고 있는 농가 직거래 쇼핑몰인 '양양물'을 양양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새롭게 리뉴얼하고, 그 오픈을 알리기 위한 '추석명절 빅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9월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벤트 행사에는 52개 업체가 참여해 54개 품목에 대해 판매를 진행해, 단기간 내 4억원이 넘는 매출 성과를 올렸다.

양양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양양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가공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간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며,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 유통과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에 양양군 농업인과 업체에 큰 보탬이 되었다는 평가다.

현재 양양물 입점업체는 82개 업체로, 군은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농가 및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유도하는 등 전략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양양군, 군도 3호선 구간 교통량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여행의 메카로써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량 또한 증가하여 지방도와 군도를 대상으로 교통량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관내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의 교통량을 계수적으로 관측, 향후 도로건설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지방도 418호선과 군도1호선부터 6호선까지 6개 노선으로 지난 10월 14일 오전 7시부터 15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상노선을 사전 답사해 교통량의 갑작스런 변화가 없는 지점을 관측소로 선정했으며, 모두 16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24시간 동안 주·야간으로 구분해 차종·시간·방향별로 통과차량 대수를 기록했다.

조사결과 양양읍 월리에서 강현면 답리로 이어지는 군도 3호선이 10,038대의 차량이 통행해 6개 구간 중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했으며, 손양면 여운포리에서 강현면 낙산지구로 연결되는 군도 5호선이 8,350대의 교통량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양양읍 서문지구, 전선 지중화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안전한 보행과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양양읍 서문지구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중이다.

총사업비 31억원(도로정비 13억, 분담금 18억)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양양군 법원·등기소에서 임천 회전교차로까지 0.82km 구간에 대하여 12월초까지 맨홀·주관로 및 지선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한전 및 통신사 등과 협약체결을 추진하여 군 분담금 납부 후, 현재 한전, 통신사의 맨홀박스 설치와 지선설치를 추진중에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관로인입과 가로등 설치 및 도로복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서문리 지역은 양양IC에서 군으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노후 된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지중화가 완료되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공공비축미 1,546톤 매입

벼 수확철을 맞아 공공비축용 벼 매입을 시작했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은 산물벼 978톤, 포대벼 568톤 등 총 1,546톤으로 이는 강원도 전체 배정량의 9.19%에 해당한다.

읍·면별 공공비축미곡 수매량은 지난해 매입 실적 등을 반영했으며, 양양읍(1.4톤), 서면(0.062톤), 손양면(1.9톤), 현북면(1.8톤), 현남면(2.5톤), 강현면(1.7톤) 양양군 전체 9.5톤 물량을 추가 배정했다.

산물벼는 벼 수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 9월 16일부터 관내 농협 건조저장시설(DSC)에서 매입을 시작했다.

매입곡종은 맛드림 단일품종으로 양양읍과 손양면, 서면에서 생산된 곡물은 양양농협에서, 현북면과 현남면은 하조대농협, 강현면은 강현농협에서 각각 산물벼를 매입하고 있다.

건조된 포대벼는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곡매입을 실시한다. 매입곡종은 2020년 매입품종과 마찬가지로 맛드림 품종만 수매가 가능하다.



양양문화재단, 제1회 양양축제포럼 개최

양양문화재단에서는 2021년 송이·연어축제 미 개최에 따른 축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1회 양양축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양양축제포럼은 연어축제를 중심으로 양양군 축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차년도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 포럼과 군민 참여 간담회로 나뉘어 총 4회 진행한다.

전문가 포럼은 축제관련 전문가의 주제발제와 토론 등으로 지난 10월 28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소강당, 29일에는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전문가 참여 포럼에서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기획과 전략, 재단의 역할, 브랜딩 연구 등 축제 추진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해법을 찾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11월 5일 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되는 군민간담회는 1차(오전 10시), 2차(오후 2시)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축제를 통한 지역상생 방안 마련, 개선의견 수렴 등 성공적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열린 토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새 단장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새롭게 단장했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1993년 7월 준공되어 오랫동안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최일선 민원소통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왔으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청사 외벽 드라이비트 균열과 떨어짐 현상이 발생하고 특히 천정 석면텍스는 직원들과 방문 민원인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총 10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 리모델링에 들어가 10월 초 공사를 완료하고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청사 외벽에는 복합판넬을 설치하고 천정석면텍스도 교체하는 한편, 농업인단체실과 회의실 설치, 영상장비시스템 구축, 복도, 화장실 등도 개선되어 방문하는 군민들의 편의를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양양 남대천



1960년



2021년

바다를 떠나 너의 손을 잡는다
 사람의 손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느껴본 것이 그 얼마 만인가
 거친 폭포를 뛰어넘어
 강물을 거슬러올라가는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단지 한 마리 물고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누구나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누구나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바다는 너의 기다림 때문에 항상 깊었다
 이제 나는 너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 산란을 하고
 죽음이 기다리는 강으로 간다
 울지 마라
 인생을 눈물로 가득 채우지 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은 아름답다
 < 정호승 시인의 「연어」 중에서 >

이달의 책이야기



상처가 될 줄 몰랐다는 말

김예원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1. 10월



무심히 저지른 폭력에 대하여 -
당신의 평범한 차별이 나의 전투력입니다.

스스로 권리 옹호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무료로 대리하는 김예원 변호사. 그가 법정에서 변론하는 과정이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은 기승전결이 확실한 소설이나 영화 같다.

김예원 변호사는 승패와 상관없이 사건이든 사람이든 포기하지 않고 결말을 반드시 책임지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가 업에서, 자신의 삶에서 보여주는 '언니의 정확하고 따뜻한 오지랖'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긴다. 나아가 인권 감수성에 관해 목소리를 내는 그의 문제의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는 우리를 반보 앞으로 이끌고 환기해준다.

책속 한구절

“네, 형법 제329조 위반 절도죄 현행범 되시겠습니다.” 그날 처음 본 사람에게 내가 처음 건넨 말이었다. 다행히 나와 비슷한 심정의 사람이 많았는지 내 말이 끝나자마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와하하 웃음이 터졌고 그도 겸연쩍은 듯 웃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는 역시 텀블러를 반납하지 않았고, 직원은 미회수 텀블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세상은 느리게 변한다. 결국 세상을 변하게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변화다. 텀블러를 끝내 반납하지 않았던 그가 살아가며 '절도'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마다 약간씩 불편해지기를 바란다. 스스로 돌이켜서 변화하기 어려운 우리네 인생에 때로는 그런 작은 파동들이 작동한다는 것을 믿는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좋은 세상이 온다」 중에서

이달의 추천 신간도서

머물고 싶은 순간을 팝니다

정은아 지음 | 쌤앤파커스
| 2021. 10월



Part 1 괜찮았던 것이 괜찮지 않아진 세상
Part 2 매일 새로운 오늘, 우리가 공간을 소비하는 법

'일상'적인 일상이 크게 일그러진 지금, 온라인 소비가 익숙해진 '언택트' 세상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소비를 하기 위해 어딘가로 직접 가고 싶고, 그곳에 머물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 동시에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필요'와 다양한 '욕구'도 생겨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공간 디렉터 정은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이다.

안녕, 내 친구

살랏 졸로토 (지은이), 뱅자맹 쇼 (그림), 장미란 (옮긴이)
| 웅진주니어 | 2021. 10월



가장 친한 단짝 친구와 멀어진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 관계의 속성에 대해 말하는 그림책. 그리고 관계를 통한 내면의 성장을 그리는 한 편의 시 같은 그림책.

여기 한 소년이 있다. 그리고 소년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다. 긴 갈색 머리를 가진, 더없이 소중한 친구이다. 소년은 친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날이 좋으면 풀밭을 뛰놀고, 비가 오면 함께 빗소리를 듣고, 노래도 부르고, 책도 보고, 재잘재잘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다. 둘의 우정은 하루하루 차곡차곡 깊어지는 것만 같았다.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11월 3일 개봉



11월 10일 예정



11월 10일 예정



11월 17일 예정



11월 18일 예정



11월 개봉 예정



문화있는날

라떼시네마

DVD무료상영회

11월 24일(수)

상영작 및 사전예매 안내는 11월 19일부터 양양 작은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 작은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033-673-7050
<https://yangyang.scinema.org>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에스텍시스템 (브리드호텔)	1명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산업기사 필수)	09:00~18:00 (주5일)	월340만원
주식회사 윤진 (홈마트)	1명	매장계산원	09:00~13:00 (주6일)	시급9,000원
설악환경산업(주)	3명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원	08:00~17:00 (주5일)	시급8,720원
㈜신우그린 (설해원)	1명	골프장 코스관리원	08:00~17:00	연2800만원
㈜KY투자개발 (소레스트콤피호텔)	2명	건물 청소원	09:00~16:00 11:00~18:00	월160만원
	6명	룸메이드, 하우스키퍼	09:00~18:00 (주5일)	월220만원
㈜소노인터내셔널 (영양지점출비처)	10명	룸메이드	09:00~18:00 (주6일)	월230만원
아라마크주식회사 (솔비치 구내식당)	1명	조리원	1일8시간 교대근무	급여협의
㈜매충업앤에프	1명	품질관리 팀장 (경력자)	09:00~18:00 (주5일)	월260만원 이상 (협의)
	5명	제품생산 및 포장	09:00~18:00 (주5일)	월182만원
서림개발(주) (e편한세상아파트)	1명	아파트 청소원	09:00~16:00 (토요일격주)	월144만원
진양산업	1명	수산물 생산 및 배송	08:00~17:00 (주6일)	월230만원이상 (협의)
굿앤굿농장	2명	양계농장 단순종사원	근무시간 협의	월190만원 ~200만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안내

- 강원도 근로자 여러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1. 10. 18.(월) ~ 인원 소진 시
 - 신청방법 : 기업 소재지 시·군청 일자리 부서 방문접수
 - 모집인원 : 양양군 11명(선착순)
 - 문의사항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17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2020년 6월~2021년 5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
- 신청기간 : 2021. 6. 1.(화) ~ 12. 31.(금)
- 감면율 : 임대료 인하액 만큼 100% 감면 (최대 50만원, 1회 신청 한함)
- 문의사항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033-670-2274)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 안내

- 신청기간 : 시행일('18. 8.)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보증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보증한도 : 4억원 이내
- 한도사정 : 5천만원 이하 - 생략 / 5천만원 초과 - 매출액 1/2
- 보증료율 / 보증기간 : 0.5%(고정) / 5년 이내
- 문의사항 :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1)

국민 누구나 다함께 배우는 디지털 역량교육 "디지털배움터" 안내

- 교육대상 : 원하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 가능
- 교육목적 :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 교육기간 : 현재부터 ~ 2021. 12
- 교육장소 : 시, 도별 1,000개소의 디지털배움터
- 신청사이트 : <https://www.디지털배움터.kr/>
- 문의사항 : 디지털배움터 콜센터 (☎1800-0096)

정보꾸러미

전세대출 문턱 낮추는 전세자금특례보증

-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 보증대상
 -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변제금을 2년(24회차)이상(프리워크아웃 지원자인 경우 12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 보가 삭제된 성실납부자
 -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5백만원)
-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 보증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소액임차인
 - 보증한도
 - 최대 3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
- 징검다리 전세 특례보증
 - 보증대상
 -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인 자.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 중이며, 제1금융권(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려 하는 자.
 - * 새마을금고, 신한, 지역농협,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공공임대주택은 90%) 이내 최대 1억 5000만원
 - ※ 보증 이용 시 보증료 : 연 0.05%(최저보증료를 적용)
 - ※ 신용평가결과 등에 따라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사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동부지사 (☎033-660-4711~4)

정치인의 기부행위 인제나 제한·금지 됩니다

기부를 받으려면?

선거에 관하여 금품,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됩니다.

신고·제보전화국번없이 1390

포 상 금 최 고 5 억

노후 긴급자금대부

실버론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만 60세 ↑**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 신청제의 대상자 별도 확인 필수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부금액

실 소요(사용) 비용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최고 1,000만원) 이내

* 월 연금액 30만원(연 360만원)의 경우,
720만원 내 실제 소요 비용

대부용도

전·월세 보증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치료목적 아닌 경우 제외)
배우자장제비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재해복구비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복구비

이자율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기준으로 **매분기별로 변동**

* (참고) 최근 2년간 대부이자율은 연 1.12%~2.05% 수준

신청기한

전·월세 보증금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 복구비	재해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전 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지사로 문의하셔서 대부용도, 신청자격, 신청기한, 구비서류 및 상환방법 등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콜센터(1355)

1355

이젠 찾지 말고 정부24에 접속하세요

보조금24

정부24 로그인 한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1 21.4.28.(수)부터 전국에서 실시합니다.


온라인 이용방법

어디서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앱(회원가입 필수)

누가 본인

어떻게 1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

2  서비스 이용동의 체크 (최초1회)


3  정부혜택 확인·신청


오프라인 이용방법

어디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필수)

누가 본인 또는 대리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만)

어떻게 1  본인신분증 지참하여, 보조금24신청서 제출

2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목록 수령하기

3  상세내용 확인 후 신청

문의처 정부24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2 앞으로 더 많은 정부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21년 4월	21년 12월	22년
혜택 종류	중앙부처서비스 (305종)	지자체 서비스 (6천여 종)	공공기관, 민간단체 서비스
혜택 확인 가능 대상	본인	*동일세대원의 가족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
온라인 신청 가능	25종	75종까지	100종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이 궁금하다면?

지금바로 확인하세요!



정부24

*14세 이상 가족이 사전동의 시 확인 가능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수준 향상!
사업주는 인력난 해소로 안심하고 경영!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강원도 근로자 여러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소상공인 포함)
- * 단,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

근로자

-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에 한함

어떤 상품인지 알려주세요

- 5년간 매월 50만 원 적립으로 3,000만 원 목돈마련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가입하나요?

-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21.1월 중 게재)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033 250 3779	삼척시	경제과 033 570 3352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 450 5359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033 737 2883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 430 2843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 440 2368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033 640 5573	횡성군	기업경제과 033 340 2060	양구군	전략산업과 033 480 2189
동해시	경제과 033 539 8010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 370 2755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 460 2383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 550 2101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33 330 2741	고성군	경제체육과 033 680 3667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 639 2268	정선군	경제과 033 560 2150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 670 2179

2021년 운영기관이 변경됩니다!

* 청약계약, 계약변경, 납입확인, 중도해지 등 처리

- 신규가입자: 강원도일자리재단
- 기존가입자: 강원신용보증재단 ▶ 강원도일자리재단
- * 가입자별 계약일을 기준으로 변경

사업총괄
강원도청 일자리정책과 033 249 2785

복지서비스 지원
강원도일자리재단 033 256 3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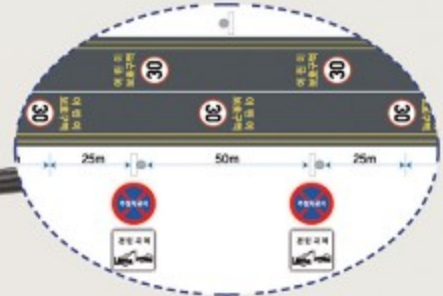
공제운영
강원도일자리재단 033 256 3275
강원신용보증재단 033 260 0091

홈페이지 www.gwwell.kr
· 안심공제 고객센터 ▶ 공지사항 참고
·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메뉴 참고

불법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신고(접수) 요건
 - ▶ 사진 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 함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